

새천년 석유회의 질의·응답 내용

I. 한국측 질의에 대한 일본측 답변

1. 일본 정유업계의 구조조정 등

■ 현재의 4개 그룹 체제로서 일본 석유업계의 이합집산은 완성된 것으로 보는가? 석유업계 내에서 M&A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?

- 4그룹 체제로 개편되면서 안정된 듯 보이나 M&A가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. M&A는 개별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므로 연맹으로서는 추가적인 M&A를 예측할 수 없음. 회사별 사안이므로 대답하기 어려움

- 일본석유연맹 입장에서도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어 애석하긴 하나 소수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음

■ 2000년 7월 이루어진 엑슨/모빌그룹의 통합은 다른 정제/원매사의 효율화/합리화 및 일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, 외자계 원매사의 시장영향력(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)은 어느 정도인가?

- 초기에는 그에 따른 우려가 많았으나 과도한 경쟁은 업계의 이익에 반한다는 인식하에 현재는 외자계 회사도 일본 석유시장에서 안정적지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.

■ 외자계 원매사의 2000년도 결산실적에 따르면, 경상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실제로 이익이 발생한 것인지, 혹은 특별이익 등 다른 부분이 이익개선에 기여했는지 그 내역은?

- 결산서 및 유가증권 평가서 등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맹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움.

2. 일본의 소매시장 상황

■ 현재 엑슨/모빌, 日石三菱 이외에는 판매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. 일본 정유업계 구조개선이 정제/원매사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문제인가? 유통/판매업자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없는가?

- 판매사 통합면에서 볼 때 코스모 석유(현 석유연맹회장의 소속회사)를 예를 들더라도 여러 회사가 통합한 후 새로운 마크를 사용하였으며, 기타 원매사도 이러한 방식의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음
- 소매단계 합리화 측면에서 석유유통 효율화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, 동 연구회에서 보고서를 정리한 적이 있음
- 최근 일본의 주유소가 60,000개에서 55,000개로 줄어들긴 했으나, 주유소당 평균 판매량이 70 kl/월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0kl/월 정도 유럽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3만개 정도로 줄여야 함.
- 그러나, 위와 같은 주유소의 급격한 감소는 어려우며, 따라서 석유유통효율화비전연구회에서 주유소의 변화방향을 ①서비스 개선, ②대량판매, ③주유소내 유외사업을 통한 경영다각화, ④주유소 조기 철폐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하는 방향 제시
- 실제로 일본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원매회사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.
- 토양오염 문제때문에 주유소 철폐가 쉽지 않으며, 특히 주유소 1개 철폐시 경우에 따라 2억엔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
- 결과적으로 주유소 단계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,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

■ 2001년도 내에 일본 석유산업의 근간이 되어 온 석유업법이 폐지될 예정인데,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업계 변화 및 석유업법 폐지가 갖는 의미/시사점은 무엇인가?

- 1996년 3월 특석법이 폐지되면서 석유업법 폐지가 추진되기 시작했음.업계는 그 당시부터 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석유업법 폐지로석유수급 등 석유산업 전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, 이는 연맹 회장의 최근 국회답변에서도 확인되었음.

■ 셀프주유소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, 일부에서는 연내 1,000개소를 넘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. 셀프주유소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은?

- 셀프주유소 숫자는 작년 300개에서 현재 약 400개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.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.

■ 셀프주유소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/플서비스 주유소와의 가격차/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/원매사 및 상사계 판매회사의 셀프에 대한 견해 및 전개 계획 등

-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나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겠느냐는 석유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리터당 5엔 정도 차이가 날 경우 셀프주유소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루었음.
- 현재 일본의 시장상황에서 리터당 5엔의 가격차이는 어려우나, 지역별로 가능할 수 있으며, 가격 차이가 증대되고 주유원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가 예상

■ 향후 일본에서 셀프주유소가 어느 정도까지 보급될 수 있을지/셀프주유소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(인식차이/안전면에서의 제약/주유소 면적 차이 등)

- 현재까지 원매사 입장에서 셀프주유소로의 변경에 따른 자금 부담 및 인건비 절감효과 미미 등에 따라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으나, 차이가 5엔 이상 되면 셀프주유소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원매사도 있음.

■ 현재 일본의 복수거래 주유소는 어느 정도인가? 복수거래시 상표표시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? 판매업자가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 원매사의 대응 및 제재 현황은 ?

- 일본에는 특약점(한국의 대리점)의 경우 원매사에 대해 우호적 감정만을 가질 수는 없으며, 복수의 원매사와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특약점과의 역학관계상 특약점에서 비밀로 복수거래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음.
- 원매사와 특약점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활발하지는 않지만, 복수상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임.
- 기본적으로 원매사 입장에서는 품질 등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단일상표를 선호하고 있음.

■ 일본의 경우 자유화가 시행된 지 오래인데도 복수품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?

- 원매사 단체인 연맹과 소매사 단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매사 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연맹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음.

■ 일본의 業轉시장규모(유종/거래량) 및 가격수준은?

- 가격수준은 석유관련 정보지에 나와 있는 수준이며, 규모는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 정도로 추정되나 통계자료는 없음.

3. 일본 원매사의 POS 시스템 운용 관련

■ POS시스템의 활용 형태/범위와 관련 주유소가 원매사에 주유소의 판매정보(물량/가격)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현황(업체명), 주유소 정보제공의 배경 및 진행경과(←Historical한 관점 : 언제 어느 회사가 정보를 제공 받아 오고 있는지) 및 향후 전개방향(Ex. 확대, 정체 또는 퇴보), 주유소 정보제공의 반대급부(*정보를 제공하는 주유소와 그렇지 않는 주유소간의 판매마진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지? 있다면 그 유형과 수준차 이)는?, POS시스템을 통한 거래투명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? 주유소의 정보제공에 대한 일본 석유업계의 전반적 시각은 ? (*긍정적 또는 바람직하다는 등의)

- POS시스템에 대해서는 석유연맹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있지 못함.
- POS사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관해 들은 바 없음
- 개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원매사는 소매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려 하고 있으며, 그 일례로 일본에서 주유소 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의점의 운영에 대해 원매사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.

4. 기타 질문사항

■ 최근의 원매사 및 상사계 판매회사의 Net-Business현황 및 주유소를 전자상거래에 이용(예를 들면, 제품인도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자동차정비/부품장착 업무 실시)하는 것에 대한 주유소업자/소비자의 반응 및 주유소 수익개선예의 기여도는?

- 일본에서도 IT 혁명 바람이 일고 있으며, 연맹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, 업계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희망하고 있음.
- 연맹에서는 IT와 관련하여 업계표준화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, 연맹은 회원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있음

■ 업계표준화의 사례 및 전자상거래 활동 내역

- 전력회사와 원매사의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을 추진중이며,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는 없고 전력회사를 상대로 시험 판매 중임.

■ 1999년 7월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 이후 동향은? 원매사의 참여정도 및 향후 전망, 석유선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에의 영향 등

- 선물시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,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.

■ 일본에서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제품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근거 규정은 존재하는지?

- 제품교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고 각사별로 품질관리만 잘 되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함.

■ 일본에서도 군납유류 입찰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일본 정유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?

-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동경고등법원에서 방위청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(일반적으로 지방법원, 고등법원, 대법원의 3심제가 원칙이나 독점금지법 위반은 고등법원에서 최초재판이 이루어짐)
-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위청 항공유 납품과 관련하여 원매회사의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, 업계에서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가격협정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일반 승용차, 트럭에 사용되는 유종은 어느 회사는 생산 가능하므로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으나, 자위대 납품 항공유는 품질이 까다로워서 항공유 생산가능 회사가 한정되므로 담합가능성이 없음
- 또한 일레로 항공자위대의 항공유 납품이 아오모리현 미사와 등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고, 파이프라인 등을 통한 특별수송을 필요로 하므로 특정회사가 공급할 수 밖에 없음. 따라서 항공유 군납은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며 수의계약이 될 수 밖에 없음.
- 현재 동경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석유업계에 유리하게 진행될것으로 확신함.

■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정부의 석유산업 간섭 정도(타산업과 비교)

- 1996년 3월 특석법 폐지 이후 실질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석사법 폐지 및 비축법 개정안이 2001년 6월중 결정되면 규제완화는 종료됨.
- 과거 석유공급계획은 수요 예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, 현재는 비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.

■ 일본의 원유수입시 중동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

- 중동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, 중동지역의 원유 매장량 등을 감안할 때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움.
-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특별한 지원은 없음일본이 동아시아 에너지 수급계획을 작성할 때 북한을 제외하는 이유
- 수급계획 작성시 IEA 자료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, 현지조사를 병행해야 하는데, 북한의 경우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, 현지조사가 불가능함.

■ 자동차 배출가스 연료 규제 등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연맹의 역할

- 자동차 배기가스는 일차적으로 기계(엔진)에 책임이 있다고 보며, 자동차 회사에서는 유행분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음.
- 일본에서는 J-CAP(Japan Clean Air Program)을 통해 자동차업계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■ 한국에서는 배출가스 총량규제 및 일부 지역 0.3%B-C유 사용 의무화 등 연료사용에 대해 이중 규제를 하고 있는데, 일본에도 이중 규제의 사례가 있는가?

- 일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법률 규제가 있으나, 지자체별로 별도 조례가 존재하여 현장에서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음.
- 최근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동경에서 운행하는 경유사용차량에 0.005% 경유만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.

■ 한국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자동차 연료용 부탄에 대해 동일한 세금 및 가격구조를 적용하는데, 일본의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구조는 어떠한가?

- 기본적으로 LPG에 대한 세금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함.
- LPG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움.

II. 일본측 질의에 대한 한국측 답변

- 최근 대기업에서 석유수입업에 진입하면서 정유회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, 그 유종 및 수입량은?
 -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물산이 수입업체 등록을 마치고, 최근 경유 500만리터를 수입하는 등 경질유 수입을 시작하였음.
- 산유국·메이저의 자본진출 현황
 - LG-Caltex정유 : Caltex가 50%, S-Oil : 사우디 아람코가 35%, 현대정유 : UAE의 IPIC가 50% 지분 참여.
- 한국의 석유산업 자유화 진행 정도
 - 수입 자유화, 정제업 진출 자유화, 판매업 자유화, 가격 자유화 등 법령상으로는 비축 규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자유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자유화 정도는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.
 -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석유산업을 공익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인식 하고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.
 - 비상시 가격규제 및 수급 자료 등 보고사항이 잔존하고 있음.
- 석유에 대한 세금 경감 정책이 일본석유연맹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, 세금을 줄이려는 한국 석유업계 및 대한석유협회의 노력은 어떠한가?
 - 2001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세제개편을 통해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 적이 있다. 최근 의료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목적세 신설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,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소극적임.

III. 한일 석유산업 협력관계 구축 방안

- 한국의 정기적인 교류 확대 제안을 환영함(일)
- 새로운 통신수단(IT)을 이용한 광범위한 교류를 제안함(일)
- 세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비중(원유거래량 15.1%, 정제능력 9.1%, 석유소비 10.7%, 제품수입량 7.4%, 제품수출 5.2%) 등을 고려할 때 해외시장에서 원유 확보 경쟁을 지양하는 등 소비국간 상호 보완 및 IEA 가입국으로서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므로, 광범위한 정보교환 및 석유산업News의 교환 등이 필요함(한)
- 그 동안 산유국과의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나, 소비국간의 관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